

LOCAL

2025년 9월 1일 월요일

함평, 중국 청두시 피두구와 국제협력 본궤도

영광, 불갑산상사화축제 기념
오늘부터 '먹깨비' 특별이벤트

영광군은 9월 1일부터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기념해 공공 배달 앱 '먹깨비'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 기간에는 전남도 공공배달 앱 '먹깨비'에서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선착순 150명에게 1인당 1회 사용할 수 있는 7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전남도 공공배달 앱 '먹깨비'에서는 2번 주문 시 1만원 쿠폰 지급, 2000원 쿠폰 무료 선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군에서 '먹깨비'를 이용할 경우 일반배달가맹점은 배달비 2000원, 공짜배달가맹점은 무료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9월 26일 개최되는 영광 불갑산상사화 축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공공배달 앱 '먹깨비' 특별이벤트도 적극적인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광양, 내년 예산 확보 '청신호'
미래 신성장·첨단소재 등 포함

광양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래 신성장산업에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현안사업을 보면 △공립 광양 소재전문화관 건립 60억원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 23억4000만원 △광양항 제품부두 전방향로 증설 준설 16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32억8000만원 △광양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스마트관망 관리 40억원 등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또한 △사용 후 이차전지 소재·부품 직접 재활용 실증기반 구축 설계비 5억원 △미래형 이차전지 원료소재 실증 플랫폼 23억원도 포함돼, 광양시가 이차전지 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시는 앞으로 열리는 9월 정국회의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

함평나비대축제·피두구 나비촌 유채꽃 축제 논의
이상의 군수 "국제적 위상·지역경제 새로운 활력"

함평군이 중국 청두시 피두구와 협력의향 협의를 체결하며 국제적 문화·경제 교류를 본격화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중국 청두시 피두구와 문화·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협력의향 협의회(Statement of Intent)를 체결했다.

이번 협의회 체결은 앞선 협약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 양 지역의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고 실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체결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와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지 피두구청장, 정당차이 투자촉진국 부국장 등 양측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상호 우호 교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축제·행사

참여, 지역 특산물·경제 분야 협력, 문화·예술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두구 대표단은 빛그린 국가산단과 함평엑스포공원도 방문해 구체적인 경제·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함평나비대축제와 피두구 나비촌 유채꽃 축제 등 지역 특화 자원을 연계해 상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27일 피두구를 방문해 양 도시의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 교류 협력, 정기적 연락 체계 구축 등 '상호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상의 군수는 "지난 3월의 우호협약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첫 만남'이었다면, 이번 협회는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시작이다"며 "문화와 경



함평군과 중국 청두시 피두구가 협력의향 협의를 체결하며 국제적 문화·경제 교류를 본격화한다.

제, 사람을 잇는 이 협력이 함평군의 국제적 위상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지 피두구청장은 "우수한 경제문화 자원을 가진 함평군과의 우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영암 한옥문화비엔날레, 달빛 아래 한옥 선보인다

군, '집은집: 달빛 아래 한옥' 주제 확정

영암군은 최근 한옥문화비엔날레조직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올해 행사의 주제를 '집은집: 달빛 아래 한옥'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군서면 영암목재문화체험장과 구림한옥마을 일대에서 개최하는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의 의미를 밝히고, 세부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옥문화비엔날레조직위는 한옥을 우리의 숨결과 삶이 깃들고 삶과 같은 존재, 여러 세대를 이어온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집으로 해석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 전통 가옥인 한옥이 형성해온 집 본연의 기능을 올해 행사에서 조명한다는 의미로 비엔날레 주제를 '집은집'으로 정했다.

나아가 한옥 해석에서 나온 숨, 삶, 섬 등 단어가 초성으로 공유하고 있는 '·'과 한옥 지붕 모양의 유사성을 살려 행사 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달 뜨는 월출산과 구림한옥마을이 어울려 특별한 운치를 선사하는 영암의 풍경을 행사 부제인 '달빛 아래 한옥'으로 표현하고, 이를 형상화하는 조형물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비엔날레 주제 전시관과 함께 구림한옥스테이 특별전시, 영암군립해정음미술관과 영암도기박물관 연계 전시, 지역작가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구림공고 한옥건축학과 체험행사 등도 협의했다.

이외에도 군은 한옥문화비엔날레조직위와 함께 영암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만들고, 11월 동시 개최되는 목재누리페스티벌, 달빛뮤직페스티벌, 월출산국화축제, 마한축제 등과도 연계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이번 비엔날레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승의 군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행사 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는 조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해남, 해남사랑상품권 15% 할인판매



경기 부양·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해남군은 9월부터 해남사랑상품권을 1인 70만원까지 15% 할인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류 상품권은 구입시 15%를 할인 판매하고, 카드·모바일은 구입시 10%에 결제시 5% 금액이 추가 적립된다.

15% 할인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이후 최대 할인 규모로, 추석을 앞두고 명절 준비와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실시한다.

군은 지난 연말연시 침체된 경기 부양

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상품권 10% 집중 할인 판매한 데 이어 7월부터 국비 지원을 통해 10% 할인을 지속하고 있다. 또 카드·모바일(QR)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교육과 모바일(QR)가맹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QR)은 실물카드 없이 해남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관광객 등 이용자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군은 모바일(QR) 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일시 | 2025. 8. 27.(수) 10:00 | 장소 |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 주관 | 나주시

나주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상품화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나주, 농산물 활용 베이커리 기술이전 협약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나주시가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베이커리 상품화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나주배 활용 레시피를 민간 업체에 이전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상품화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베이커리 상품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와 평가를 거쳐 농업회사법인 ㈜연지도, 나주 월하당 등 2개 업체가

협약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협약에 따라 나주배를 원료로 한 '배로~만주' 등 2종 표준 레시피를 이전하고 기술이전 교육 및 사후 기술지도, '나주배로' 상표 사용 지원, 관내 농산물 활용 확대 협력 등을 추진한다. 시는 협약 체결 이후 기술이전 교육을 했으며 참여업체의 생산, 판매 활동에 대한 행정 지원과 품질 관리, 판로 확대를 위한 사후 관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윤병대 시장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상품화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모델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나주배를 비롯한 지역 농산물이 전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원천 기자 pose007@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